

농어촌공사 물 공급 능력에 속타는 농민

나주 봉황면 박실마을 모내기철 논바다 바짝 말라 발동동 수문 고장 호소해도 나몰라라... 100여농가 벼농사 포기할 판 사비 들어 수로 만들자 불법이라며 되레 막아 농민들 분통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나주의 한 농촌마을이 농어촌공사의 '능장대응'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받지 못해 농사까지 포기하는 처지인 데다 사태가 빚어져 논란이다.

25일 나주시 봉황면 박실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박실마을은 100농가에서 113ha의 논사를 짓고 있는데, 농업용수로의 물길 막히면서 물 공급이 안돼 마을 앞 농경지와 호혜원 주변 논 등의 모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실마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나주호의 담수율은 현재 62%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제 때 물 공급이 안돼 올해 벼 농사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박실마을 주민들은 최근 농어촌공사나주지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답사를 나오기는커녕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자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박실마을 주민 최영록씨는 "최근 마을 이장과 박실마을 수로담당자와 함께 농어촌공사나주지사 직원을 직접 만나 제때 모내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급한 마음에 일부 농민들이 직접 사비를 들여 중장비를 동원해 수로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농촌공사직원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박실마을의 한 주민은 "일부 주민들이 모내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사비를 들여 포크레인 작업으로 물꼬를 트고 모내기를

하려했지만 농촌공사직원이 이마저도 못하게 막아에만 태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나주지사는 지난 23일 광주일보 기자가 현장 취재에 나서자, 지사장 과 담당자가 마을에 모습을 드러내는 행태를 보였다.

이날 농촌공사나주지사 관계자와 함께 둘러본 박실마을 들녘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농업용수가 넘쳐 흐르는 간선과 연결된 지선을 따라 마을쪽으로 내려가자 갑자기 물을 한 방울도 구경할 수 없었고, 정비불량으로 지선이 막혀 마을 앞 들녘 논 바다는 바짝 말라 있었다. 반면 나주호에서 통수한 농업용수는 지선이 아닌 간선을 통해 영산강으로 흐르고 있었다.

또 마을 아래쪽에 설치된 수문도 수년째 고장난 채 방치돼 물 공급이 차단되면서 일부 농경지는 농사마저 포기한 상태였다.

특히 농어촌공사측은 일부 콘크리트 수로가 파손돼 물이 엉뚱한 곳으로 누수되고 있다는 민원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해 총체적인 행정부실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박실마을 수로관리를 맡고 있는 최영선 수로관리원은 "농어촌공사측에 수문이 고장 나 물 한 방울 눈에 채울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해도 사진만 찍어가고 5년 넘게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농사를 짓기 위해 임시로 물구멍을 내자 담당자가 찾아와 불법이라며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수문상태를 확인한 박



나주시 봉황면 박실마을 주민 최영록씨가 모내기를 해야 할 논이 바짝 말라 애를 태우고 있다.



박실마을 농경지 내 수문이 닫힌 채 '조절기'마저 파손돼 수년째 물공급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광호 농어촌공사나주지사는 "수문이 고장난지 10년은 넘은 듯 한데, 그동안 수리를 안하고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물을 안 받으려고 주민들이 (일부러) 막아놓은 것 아니냐"고 엉뚱한 말을 해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 지사장은 이날 농민들이 사비를 들여 수로를 확보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말로 협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나주지사는 나주지역에 전체 수도작면적 중 86%인 1만2000ha의 농경지의 수로 2824km를 직원 30여명이 관리하고 있다.

나주지역 수로는 지난 1976년에 설치돼 노후된데다 간선에서 연결된 지선의 수로 턱도 높아 물이 흐르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태 파악 및 보완 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글·사진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청년 창업농 육성고교로 호남원예고 새롭게 탄생

농림부 창조농업 선도고교 선정...국비 130억원 지원받아

나주호남원예고등학교(교장 김찬중)가 전국을 대표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고교로 탈바꿈한다.

25일 나주호남원예고에 따르면 최근 창조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창조농업 선도고교 지원 사업에 선정돼 향후 10년간 국비 1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호남원예고는 그동안 한 교정에 나주금전중학교와 함께 있는 데다, 교장 1명이 분야가 다른 중·고 교육을 책임지면서 특성과 교육고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남원예고는 이번 창조농업 선도고교 응모사업 평가에서 인력양성 목표와 학교발전 및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생선발 방법, 실습시설 및 기자재 활용 계획,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교원의 참여의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조농업 선도고교지원 사업은 원예와 축산 2개 분야에 국가직무능력 표준(NCS)을 반영하고 전문교과를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 졸업 후 영농창업이 가능한 후계 영농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호남원예고를 포함해 3개교가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구성·운영, 학교개편, 산학협력 체계 구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을 만들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는 선정된 3개교에는 개교 지원금으로 20억원씩 총 60억원이 지원되며, 기자재 및 실습시설 개보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체계적인 실습 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호남원예고는 이번 선도고교 선정과 2017년 금전중학교의 빛가람혁신도시



호남원예고에는 그동안 한 교정에 나주금전중학교와 함께 있는 데다, 교장 1명이 분야가 다른 중·고 교육을 책임지면서 특성과 교육고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찬중 호남원예고 교장은 "중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단독캠퍼스를 확보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내실화와 원예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운동부 등을 해산하고, 농업과 원예 분야 교육에만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호남원예고는 창조농업 선도고교 지원에 따라 앞으로 도제식 교육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된다. 주 3일은 현장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2일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습 학년제를 운영한다. 또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해외 전문기관 연수 등에도 나선다.

호남원예고 학생들은 또 등록금 면제 및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특히 졸업생은 전원 창업을 목표로 학교명의 '농업 실무역량인증서'를 발급받고, 사후관리까지 지원받게 된다.

전남도교육청은 향후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숙사 증개축, 실습 시설 및 기자재 보강, 노후교실 중수, 보강 교과목 개발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인 학교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이야기관광좌 3강...도래마을 전통미에 빠지다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나주 이야기관광좌 강좌' 3강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최근 나주 다도 도래마을 답사에 나섰다. <사진> 이번 답사는 윤여정 동산대학교 영상강문화센터 연구위원의 안내와 해설로 진행됐으며, 나주이야기관광좌 4강 답사는 오는 6월 11일 다시 회진마을로 예정돼 있다.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는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이 주최하고 동산대학교문화박



물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향교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으로 문화재정의 후원으로 3년째 실시되고 있다. 참가 문의 061-330-4004.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축협 전임 조합장 등 13명 고발 파문

"오리가공공장 130억 손해" ... 조합원이 업무상 배임으로

나주축협의 한 조합원이 방만한 오리가공사운영 등으로 130억원대의 누적적자(광주일보 3월 29일자)를 낸 전임 조합장과 이사 등 13명이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나주축협조합원 A씨는 지난 23일 나주경찰서에서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전임 조합장 및 이사들이 오리가공사운영 진행과정에서 각종 특혜로 나주축산협동조합에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서 "특

히 오리가공공장 임대 및 매매과정에서 자산평가 실무직원의 '가치평가가 30억도 안 된다'는 보고서를 무시하고 45억원에 매입한 것은 불법특혜"라고 주장했다.

A씨는 관련 증거자료로 나주축협에 보관 중인 당시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과 2 적자 70억원 중 64억7000만원을 총당하면서 지난해 조합원 1000여명에게 지급해야 할 개인 배당액 20여억원을 소멸 조치해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